● 5월 12일 나의 하루는...

11209 윤선주

자-112-9

화창한 여행날!

5월 12일 오늘은 아빠와 같이 여행을 가는 날이다. 아빠와 요즘은 교류가 뜸해서 그런지 같이 있는게 조금은 어색할때도 있다. 하지만 아빠니까 안심이된다. 그리고 편안 해진다.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가니까 외롭지 않고, 오히려 신이나고 즐겁다. 부산으로 여행가서. 맛있는 음식도먹고 바다도 구경하고 좋은 호텔에서 자고 항상똑같이 다들 하는 여행처럼 보는데 정말 행복했다. 바다에 가면나는 짠내와 부산에 있는 시장을가면 사람들의 인심과 정 그리고 말꼬리를 끄려진 호텔에가면 편안히 쉴수있는 침대들이 있는, 이런 사소한 행복들이 있어서 우리가족들이 행복하게 여행을 할수있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빠차를 타면서 창문을 열고 맞는 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느껴지고 그순간에 매우 많은 생각이 가끔지나가기도한다.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맛보는 이런시원함이란! 매우 상쾌하다. 그렇게 쭉 달리다가 잠에들게 되는데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다. 이런여행을 가족들과 같이 간것이 행복하다!

인권기록활동가네트워크
Human & Memory Archives